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e-mail

cpla@minjoo.kr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공공기관운영민주화·공공성강화 실천단」 과 정책간담회
-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강원지역 지지 선언

노동존중 선대위 「공공기관운영민주화·공공성강화 실천단」,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포용적 성장과 노동권 강화가 시대정신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4개 산별노조·연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노정관계를 구축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선대위 공공기관운영민주화·공공성강화 실천단은 5월 26일 (월)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 공공노동자의 지지선언을 끝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노동존중사회 구축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6개의 의제별 실천단을 별도로 구성해 정책협약과 지지선언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기관운영 민주화·공공성강화 실천단’ 책임의원으로서 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박해철 의원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인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전력연맹 지도부가 함께 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는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기관운영 민주화 ▲민영화 금지와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대·구축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과 노정교섭 실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등의 공공부문 의제를 차기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공공기관 복리후생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조직과 협의”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공무원 노동자의 인사기준과 노동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공무원위원회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 정책을 수립·논의하는 절차에서는 노동자 의견 경청과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기도 했다.

정책간담회와 지지선언에 함께한 박해철 의원은 "공공노동자 출신으로서 오늘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에서 전달해주신 정책제안 내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할 공공노동자들의 이재명 후보지지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건강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으로 국민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노동존중 선대위 금융노조본부 김형선 본부장(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진 공공기관의 노사자치라는 원칙을 다시금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 공공노동자의 제안을 경청한 박해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주신 제안은 차기 정부가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대선 승리 후 어떤 현안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 이후 공공기관에 자행된 기관장 낙하산·알박기 인사도 시급히 해법을 찾을 과제다”고 답했다.

정책간담회 후 4개 산별노조·연맹은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일동’ 명의로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간 지속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민영화 시도, 일자리 축소는 공공성의 위기이자 국민 삶의 위기로 이어졌다”며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포용적 성장과 노동권 강화 약속 정책이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노동자 권익 증진, 사회적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강원에서도 “이재명이 답이다” 지지선언

5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는 강원지역 퇴직 교사·공무원, 학부모, 정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지지선언은 “공직사회의 침묵을 깨고 국민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자는 실천적 외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천단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상 정치중립 의무 규정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행사 및 활동 전반은 공직자가 아닌 퇴직자, 시민 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및 공직 사회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제는 현장 목소리가 국회로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침묵은 다르다. 현장 공무원이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호범 노동존중국민특보(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침묵을 강요당할수록 정책은 현실과 멀어지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직자의 처우개선과 정책개혁을 위한 실질적 제안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단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에서 퇴직공직자·퇴직교원·학부모·정책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지지선언 릴레이와 정책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및 공직사회 전반의 근본적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끝/

- 붙임 : 1.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간담회 및 지지선언 행사 개요
2.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지지선언문

3. 현장 사진 별도 첨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간담회 및 지지선언

□ 행사 개요

- 일 시 : 2025년 5월 26일(월) 13:00 ~ 14:00
- 장 소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한국노총
- 참석범위
 - 더불어민주당 : 노동존중선대위 공공기관운영민주화·공공성강화 실천단 단장 박해철 국회의원
 - 한국노총 :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전력연맹

□ 프로그램(안)

사회 : 한국노총 정책2본부 제정남 국장

구 분	내 용(안)	비고
13:00 ~ 13:02(2')	개회	
13:02 ~ 13:08(6')	인사말 (박해철 공공기관운영민주화·공공성강화 실천단 단장)	
13:08 ~ 13:28(20')	정책 간담회 - 공공연맹(공공성 강화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전환) - 공공노련(민영화 금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금융노조(민주적 노정관계 구축, 노정교섭 실시) - 전력연맹(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참가자 발언 조직별 5분
13:28 ~ 13:38(10')	질의 응답 및 지지선언문 낭독	
13:38 ~ 13:50(12')	마무리 발언, 사진 촬영 및 폐회	

* 세부 시간 및 배분은 제반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대통령,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 가치를 확립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대통령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어떠한 이유로도 시장의 논리나 이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간 지속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민영화 시도, 일자리 축소는 공공성의 위기이자 국민 삶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공공성 강화, 노동존중, 정의로운 전환의 비전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개혁을 주창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의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일자리 확대, 공무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무직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과 노정교섭 정례화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와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합리적 정책 추진을 약속하며, 공공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제시하며 이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노동자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포용적 성장과 노동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책이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노동자 권익 증진, 사회적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는 한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선언합니다. 21대 대통령선거는 공공의 가치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재명, 반드시 승리합니다!

2025년 5월 26일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일동

강원지역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계획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 행사개요[안]

- 일 시 : 2025. 5. 26(월). 10:30~11:00
- 장 소 :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 참석대상 : 20여 명
 - 김도균 도당위원장, 허영 국회의원, 퇴직 교사·공무원, 학부모, 정책 전문가
 - 이호범 노동존중국민특보(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주정호, 조인묵,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등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의제 실천단(실천단 책임의원: 박정현 의원)
-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추진단장 이호범, 前강원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 활동 취지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한계, 퇴직공직자 중심 현장 경청 및 공직자 처우개선 등 정책개선과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창구 역할
- 17개시도/226시군구 공직자 및 가족 300만의 의견 청취 및 정책 수렴
- 활동기간 : 2025.5.19.(월)~6.2(월) 2주간 집중전개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35	참석자 소개	한국노총 부분부장
10:35~10:40	실천단 활동 취지 설명	추진단장 이호범
10:40~10:50	인사말(김도균 도당위원장, 허영 국회의원)	
10:50~10:55	의견 경청(교원·공무원 처우개선과 헌법상 기본권)	
10:55~11:00	종합정리 발언	추진단장 이호범
11:00~	기념촬영(손피켓) 및 폐회	다함께

※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변경 가능

붙임 4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개요

□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구성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3일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대선을 앞두고 노동 현장의 핵심 요구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동 활동에 돌입.
-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는 ‘주 4.5일제 실천단’, ‘안전한 일터 실천단’,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등 실천가능한 정책의제에 대한 6개의 실천단을 구성해 이를 정책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위원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주영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 또한, 한국노총 상임위원, 회원조합 대표자, 시도지역본부 의장들이 각 부문별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들이 실천단의 책임의원(실천단장)을 맡아 현장 요구를 정당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특히, 박정현 국회의원(강원 대덕구)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의제의 책임의원을 맡아, 관련 실천단을 주도하고 있다.

붙임 5 관련 현장 사진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한국노총 공공노동자 간담회 및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한국노총 공공노동자 간담회 및 지지선언



▲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강원지역 지지 선언



▲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강원지역 지지 선언